

# 한 집 건너 하나... '그나마 낫다' 해도 절반은 3년내 폐업

## 위기의 자영업자

### ③ 커피전문점

커피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10곳 중 한 곳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새 커피 소비량이 빠르게 늘었지만 커피전문점의 창업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 탓이다.

이와 함께 작년 문을 닫은 커피전문점 절반 이상은 영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곳 중 1곳은 3년 안에 문을 닫은 셈이다.

6일 KB금융그룹의 '커피전문점 현황 및 시장여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은 7만1000여개다.

####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커피숍

전국 커피전문점수는 2011년에서 2016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고, 2017년 증가세가 둔화된 이후에도 약 8%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지역별 커피전문점 매장수는 경기도가 1만5000여개, 서울이 1만4000여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두 지역이 전체 커피전문점 매장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2%로 10개 중 4개는 서

KB금융 '커피전문점 현황 보고서' 전국 7만1100곳, 경기 1.5만개 1위 적자 매장, 음식점보다 2배 이상 ↑ 시장규모 커졌지만 영업이익은 줄어

“동일 상권이라도 매장별 차이 커 경쟁 심화 업종, 창업시 주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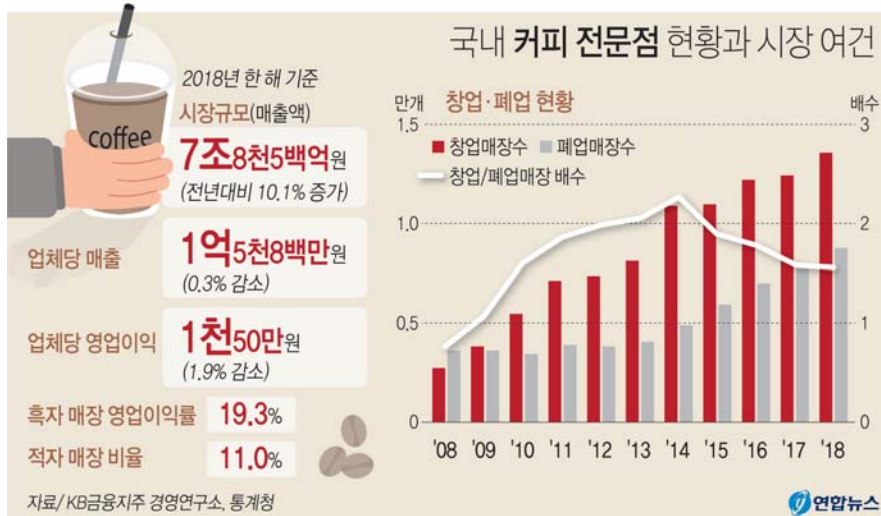
울과 경기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1739개로 가장 많았고 ▲창원 1420개 ▲수원 1321개 ▲성남 1278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구 1000명당 커피전문점수가 많은 곳은 ▲서울 중구 8.80개 ▲대구 중구 7.68개 ▲부산 중구 6.30개 ▲서울 종로구 5.93개 등의 순이다.

#### ◆커피전문점, 절반은 3년 이내 폐업

지난 2008년 3000개가 넘지 않았던 커피전문점 창업은 2018년 1만4000개 수준으로 늘었다.

창업이 폐업보다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창업률은 하락하고, 폐업률은 상승했다. 커피전문점 창업률은 2014년 26.9%로 고점을 기록



한 이후 2018년 22%로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폐업률은 11%에서 14.1%로 높아졌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김태환 연구원은 “커피전문점은 브랜드 보다 맛과 접근성, 가격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 소형, 비 프랜차이즈 매장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라면서도 “매장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동일 상권이라도 매장별 매출에 차이가 커 창업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창업 후 단기간에 폐업하는 매장도

급증했다.

영업기간이 3년 미만인 폐업 매장수는 2013년 1924개에서 2018년 4574개로 약 2.4배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전체 폐업 매장의 52.6%는 영업기간이 3년 미만이었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영업기간 3년 미만 폐업 비중은 제주가 62.8%로 가장 높았고 ▲세종 59.3% ▲광주 58.6% ▲인천 57.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매장 10곳 중 한 곳은 적자

커피전문점 총매출은 2016년 7조 1000억원에서 2017년 7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매장수와 영업비용은 더 늘면서 업체당 영업이익은 118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었다.

매출액보다 영업 비용이 커 적자로 운영 중인 커피전문점의 비중도 11%로 음식점 4.8%에 비해 높았다.

다만 적자 운영 매장을 제외한 커피전문점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율(영업이익률)은 커피전문점이 19.3%로 음식점이 17.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기준 커피프랜차이즈 매장수는 1만5000개로 외식 업종 중 한식, 치킨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4%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수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이디야커피로 지난해 기준 2399개다. 그 뒤를 ▲투썸플레이스 1001개 ▲요거프레소 705개 ▲커피에 반하다 589개 ▲빽다방 571개 등이 이었다.

직영점만 운영하고 있는 스타벅스 매장수는 2015년 869개에서 2018년 1262개로 늘어 이디야커피 다음으로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쪼그라드는 흑자’... 3분기 경상 414억弗 7년 만에 최저

9월 경상수지 74억8000만 달러 수출 10.3% ↓, 10개월 감소세 올해 590억 달러 달성 ‘빨간불’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4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32% 쪼그라들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2012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인 59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경상수지 흑자 연 590억달러 가능할까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9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3분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414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3분기(570억2000만달러)보다 155억5000만달러 줄었다. 이는 지난 2012년(261억3000만달러)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9월 경상수지는 74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며 지난해 10월(93억5000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흑자규모는 지난해 9월(110억1000만달러)보다는 35억4000만달러(32.2%) 축소됐다.

경상수지를 이끄는 상품수지의 3분기 누적 흑자는 568억5000만달러로 지난 2013년(563억2000만달러) 이후 6년 만에 최저치였다. 수출(4171억4000만달러)이 10.6%로 줄면서 수입(3602억9000만달러)보다 감소 폭(5.1%)보다 컸던 영향이다.

9월 상품수지 흑자는 88억4000만달러였다.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 9월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9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3분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14억6000만달러로,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다는 41억7000만달러(32.0%) 축소됐지만 같은 해 10월(106억5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흑자규모를 나타냈다.

9월 수출은 460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3억1000만달러(10.3%) 줄면서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도 371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3억1000만달러(3.0%) 감소하며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 하락과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지난해보다 크게 축소됐다”며 “반도체 수출 감소 폭이 200억달러를 넘는 등 최근의 상품수지 둔화는 반도체 경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나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 전망치인 590억달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7월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4월 전망치인 670억달러보다 80억달러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전망한 연 59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려면 올해 4분기에는 175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 월 기준으로는 58억5000만달러 수준이다.

박 국장은 “지난 4월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 경상수지 적자를 보였지만 5월부터 흑자 전환해 월평균 60억달러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10월과 11월, 12월에도 비슷하게 간다면 산술적으로는 연간 590억달러를 달성 가능성이 크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 ‘긍정적’

한은은 서비스수지 적자 흐름이 개선되고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9월 서비스수지는 25억1000만달러 적자로 1년 전(-24억7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지난 1월(-36억1000만달러) 이후 8개월 만에 적자 폭이 가장 컸다.

여행수지는 7억8000만달러 적자로 1

년 전(-11억5000만달러)보다 축소된 반면 운송수지가 6000만달러 흑자에서 3억2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선 영향이다. 수출 물동량이 감소하자 화물 운송 수입이 줄어 운송수지를 악화시켰다.

다만 기초적으로는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3분기 누적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183억3000만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234억1000만달러)보다 50억8000만달러 축소됐다.

일본 여행 감소로 출국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위주의 입국자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3분기 여행수입은 135억2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이 포함된 본원소득수지의 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9월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14억달러로 1년 전(9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4억3000만달러 확대됐다.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 영향이 컸다.

3분기 누적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도 75억8000만달러로 201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많았다. 본원소득수지 중 투자소득수지는 319억7000만달러로 역대 1위였다. 9월 기준으로는 14억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박 국장은 “상품수지 흑자 폭은 축소되고 있지만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의 개선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이어지고 있다”며 “9월 이후를 봐도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큰 폭 흑자”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P2P대출 연체율 12.5%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 “불건전 영업 대응”

P2P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P2P대출의 연체율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P2P누적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이다. 대출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P2P대출은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최근 1년간 부동산 관련 P2P대출의 증가율은 62%에 달한다. 부동산담보대출과 자산유동화대출(ABL)의 성장세가 두드러졌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작년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면서 성장이다 소 정체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30일 이상)은 12.5%로 높은 수준이다. 사기·횡령 등으로 수사 중인 업체를 제외할 경우 5.3%로 낮아지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금융의 양적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대출 취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현장감사 등을 통해 P2P업체(연계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